

전쟁상황 따라 유가 80달러로 상승

CSIS, 시나리오별 4가지 전망 … 미국 유리하면 2/4분기 25달러 가능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카운트다운에 접어들면서 북미 지역의 석유 수급은 타이트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유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는 OPEC의 산유량 규제와 비축량 감소 속에서 오일 쇼크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으나 연료대체가 용이하지 못한 수송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급등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

만약 중동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또는 사담 후세인이 물러나고 가능한 최대한의 원유가 생산·수출되면 석유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 석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불안요인은 남아 2003년 1/4분기 동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전쟁 불발에 대한 결론이 잠잠해 지고 소위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2/4분기에는 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유가는 연말까지 하락된 수준에서 머물며, 2004년 OPEC과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면 유가는 Brent유 기준으로 배럴당 최저 16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전쟁 불발 시 유가전망 (단위: 달러/bbl)

구 분	1Q	2Q	3Q	4Q	연평균
2002	21	25	27	30	25
2003	30	22	22	22	24
2004	20	16	16	20	18

전쟁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돼 이라크가 그다지 심한 저항 세력이 없이 몇 주 내로 무너지고 새 정부가 수립된다면, 또 유전과 석유 인프라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석유 생산은 약 3개월 동안 중단되고 모든 전쟁이 종결된 2/4분기 이후 점차 생산을 개재할 것이다.

2003년 3/4분기에는 이라크가 2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OPEC 회원국들이 이라크의 공급중단 기간 동안 부족량을 메워 주겠지만 전쟁 초기에는 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석유 시장, 특히 석유 수입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거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불연속성과 시장의 심리적 요인으로 2/4분기에 국제유가는 평균 배럴당 25달러를 유지하겠지만, 낮은 수요 증가율과 각국의 증산으로 인해 3/4분기에는 시장에 초과공급 상황이 나타나 유가는 20달러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유리한 전쟁일 시 유가전망 (단위: 달러/bbl)

구 분	1Q	2Q	3Q	4Q	연평균
2002	21	25	27	30	25.8
2003	36	25	21	22	26
2004	24	24	20	20	22

반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거센 저항을 맞게 되고 이라크가 궁여지책으로 대량 살상무기까지 동원

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까지 더해지면 전쟁은 심각한 위기로 몰린다.

거의 모든 유정에 불이 붙으면 이라크는 2003년 한해 동안 석유 생산은 불가능하게 되며, 아랍 국가들과 미국 간에 석유를 무기화한 분쟁이 거세지면 대략 500만-600만배럴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유(SPR)를 긴급 방출하고 IEA가 추가 방출을 결정해도 석유 공급중단과 전쟁 확대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가는 2003년 1/4분기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는 2003년과 2004년 대부분을 통틀어 석유 비축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석유 소비의 급감으로 유가는 2/4분기 배럴당 60달러, 3/4분기와 4/4분기 50달러로 하락하게 되며, 2004년에는 중동 산유량이 크게 줄어 연평균 유가는 40달러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

불리한 전쟁일 시 유가전망 (단위: 달러/bbl)

구 분	1Q	2Q	3Q	4Q	연평균
2002	21	25	27	30	25.8
2003	80	60	50	50	60
2004	45	40	40	35	40

전쟁이 중도적 상황으로 전개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소 6개월 동안 이라크의 석유 생산이 중단되며, 아랍권 국가들에서 증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난다면 석유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일부 수입국에서 사재기 현상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석유 수급악화를 감안해 미국이 SPR을 하루 100만배럴씩 방출하기로 결정하고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이 잇따르면 세계 석유 비축량은 2003년 상반기 동안 위험 수준에서나마 유지될 수 있다.

2003년 4/4분기까지 비OPEC에서의 산유량 증가, 중동 산유량의 점진적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의 둔화세와 이에 따른 석유 수요량의 감소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로 떨어진다. 그러나 2004년에도 공급불안이 지속되면 OPEC 공급량이 정상 수준으로의 복귀하기 어려워지면, 2004년 세계 석유의 상업 비축물량은 상당히 불안해 2003년 4/4분기 동안 유지되었던 유가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중도적 전쟁일 시 유가전망 (단위: 달러/bbl)

구 분	1Q	2Q	3Q	4Q	연평균
2002	21	25	27	30	25.8
2003	42	40	36	30	37
2004	30	30	30	30	30